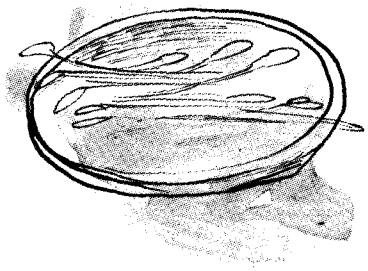
「콩나물」은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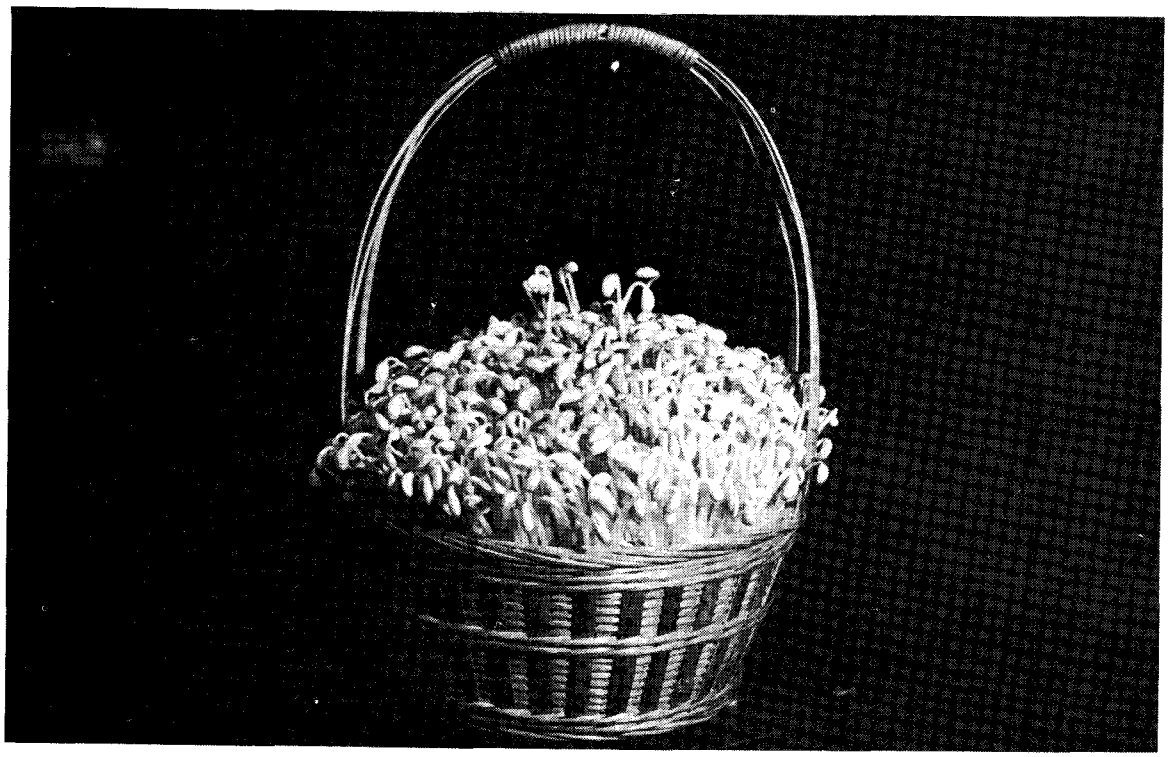
1. 콩나물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콩나물 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농약을 연상한다. 그동안 십여년 이상이나 수십차례에 걸쳐 콩나물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그때마다 보도매체들이 총동원되어 마치 콩나물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큰일이 나는것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콩나물 재배업자들은 보도매체들의 거대한 위력을 실감하면서 꺼져가는 촛불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게 매도하는 언론들도 콩나물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것이다.

콩나물이 문제가 되면 으레히 수은계 농약을 들먹인다. 그리하여 농약콩나물 또는 수은콩나물 이라고 나름대로 단정을 해버린다.

지난 1987년 1월 28일자 J일보의 사회면에 「시판 콩나물 먹기겁난다」라는 제하에 수은이 허용기준치의 16배까지 초과하였다는 7단짜리 대형 보도가 있었다. 물론 이 기사로 인하여 콩나물 재배업계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었으며 이 기사가 대학교수의 연구논문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에 질타당한 보건사회부와 검찰이 곧바로 전국의 콩나물 재배업자를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연발생의 원인으로 극히 미량의 수은이 검출된것은 불과 몇건이 있었으나 허용기준치 0.1PPM은 고사하고 거의 검출된것이 없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지난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수은계 종자소독약인 「메르크론」이 완전 생산금지가 되어 시중에 수은계 농약이 있을 턱이 없으니 콩나물에서 수은이 사라져 버린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겠다.

당시에 그 연구논문은 콩나물에서 수은이 허용치의 16배까지 초과하여 검출이 되었으나 이것을 씻고 끓이는 과정에서 거의 소멸되어 버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계에서는 허용치 정도밖에 잔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나, 특종을 의식하여 거두절미하고 수은검출만 강조하여 기사화한 보도의 발상이나, 이미 사라져 버린 수은을 콩나물과 연관하여 연구하게된 발상이 콩나물하면 수은을 연상하는 잠재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라 믿어지며



콩나물의 실체와 현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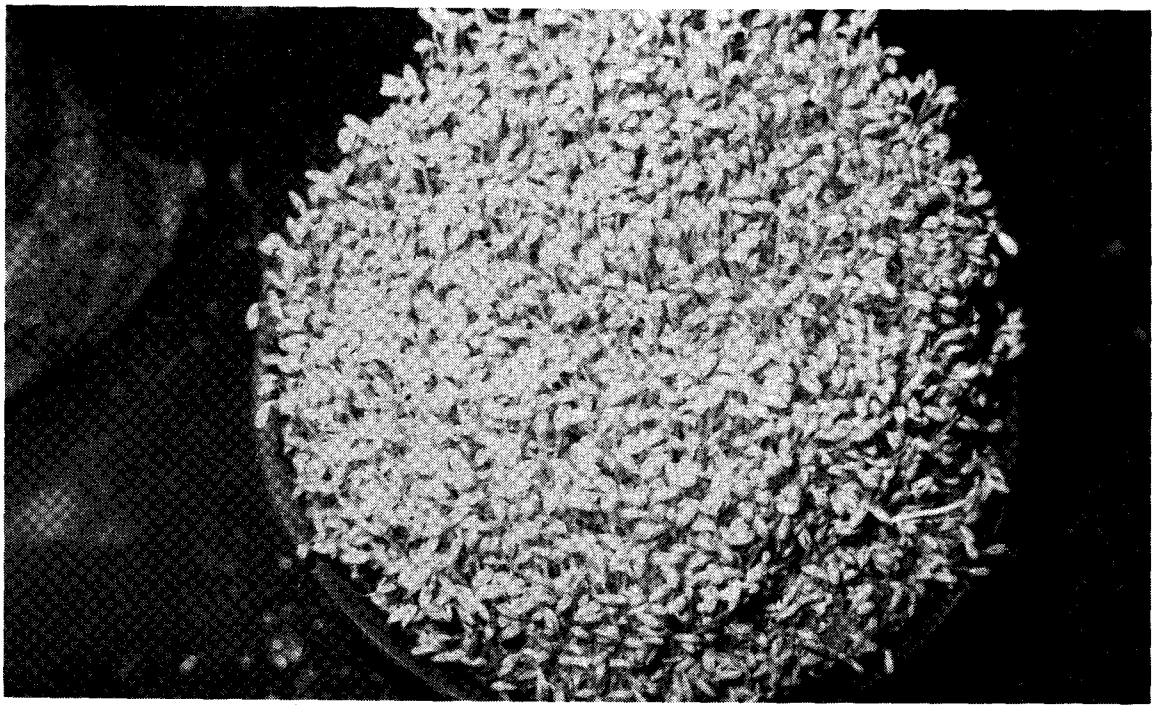
또한 사람들은 콩나물을 재배할때 농약을 마구 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것 같다. 그리하여 콩에서 콩나물로 다 자랄때까지 물에 농약을 타서 할머니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 주듯이 그렇게 물을 주는것으로 연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농약콩나물」 또는 「농약 섞인 콩나물」 또는 「농약을 첨가한 콩나물」등으로 표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단 한번만이라도 눈여겨 본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수도 없다는 것을 금방 알수가 있다.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오염되지 아니한 지하수를 풍부하게 끌어 올릴수 있는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지하 30m~100m까지도 뚫어야 한다. 그리고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뽑아 올리게 되며 콩나물 동이가 펄펄 넘치도록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성장중의 에너지대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고 급수의 효과도 주어야한다. 때문에 한번 사용된 물은 절대로 다시 사용할수가 없다.

극히 일부이긴하나 발아부진과 성장중에 부패를 견디지 못하여 유발되고 있는 농약 사용의 실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농약을 마구 뿌려주는 것이 아니다.

초기단계인 콩을 종자로써 처음 물에 담가서 불릴때. 법씨종자 소독약을 물에 약간 희석하여 주는 것이 농약사용의 전부일 뿐이다. 그런데도 잔류량이 상당수치가 검출되는것은 콩나물을 수거할때 수거검체의 규격이나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여야할지 알지를 못하여 싹도 트지않은



불리어 놓은 콩까지 수거하는등의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있는 볍씨의 종자소독약은 볍시이외에 콩, 오이, 참깨, 고추, 수박, 등의 종자소독으로 쓸수도 있는 종자소독약으로써 카마메이트 계통의 미국명 「톱신엠」 일본명「호마이」로써 주성분이 「치오파 네이트 메틸=Thiophanate methyl」 또는 「치오 알로파 네이트=Thiolophanate)」라는 것으로 다른 채소류 에서는 5PPM까지 잔류치를 허용하고 있는 극히 저독성이다.

2. 어느 농산물 보다도 안전성에 자신있는 콩나물

어떻든 콩나물은 중점 단속품목이 되어 지금도 전국의 각 재배업소를 대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하고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공무원들도 상부로 부터의 지시이니까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이상한것은 독성이 강한 고독성이나 맹독성의 농약을 사용하고있는 어느 농산물도 수거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물질을 사람이 먹는 식품에 뿌린다고 처벌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콩나물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다소의 식품이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마다 몇번씩에 걸쳐 농약 콩나물의 희오리에 휘말려, 이제는 소소비 식품이 되어 버린지도 오래다. 지금은 콩나물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물론 그 이유는 콩나물이 농약의 대명사가 되어 먹기가 겁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농약의 잔류량을 검사하여 비교하여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상상 이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결과가 겁이나서 다른 농산물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아무리 콩나물이 어쩌구 해도 콩나물 밖에 먹을것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콩나물 이외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콩나물이 겁나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할런지도 모르나 적어도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콩나물만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다고 믿는다. 콩나물의 실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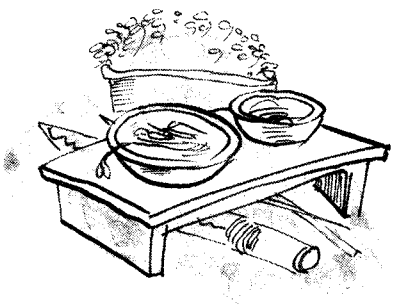
3. 콩나물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농산물 중에서도 더구나 콩나물과 유사하게 재배되고 있는 버섯도 있고 수경재배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콩나물만 문제를 삼고 있는것은 콩나물의 재배가 시설물에 의하여 이루워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기 때문인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품에 농약을 첨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것 같다. 또 3~4일간의 단시간 내에 콩나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엄청나게 생산량을 부풀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콩나물은 그게 아니다.

이것이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잘 터줘야 하고 자라면서도 병원균이 침투하여 썩지를 말아야 한다. 물론 종자인 콩이 건실하다면 종자 처리를 하지 않아도 콩나물로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콩농사를 지으면서부터 농약은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로 콩종자가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발아가 부진할수도 있으며 성장중에 부패로 인하여 몽땅 버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업자들은 종자처리의 유혹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은 천지풍파와도 같은 물의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내에 재배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생산량을 부풀리는 수단도 아니다. 콩나물은 지하수의 온도와 재배실의 온도에 따라 8~10일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다.

콩나물은 단시일 내에 제조하는 식품이 아니고 생명을 키우는 농산물의 재배이다. 따라서 그 생명이 썩지 않고 잘 자라게 할수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조건 농약 콩나물로 매도하여 콩나물의 원조인 이 나라에서 최고의 식품인 콩나물이 결코 말살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